

■ 특특뉴스

무협, LG상사 등과 업무협약

한국무협협회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LG상사, 징동월드와이드와 '한-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영 무협협회 베이징지부장과 이강녕 LG상사 북경지사장, 위동화 징동월드와이드 마케팅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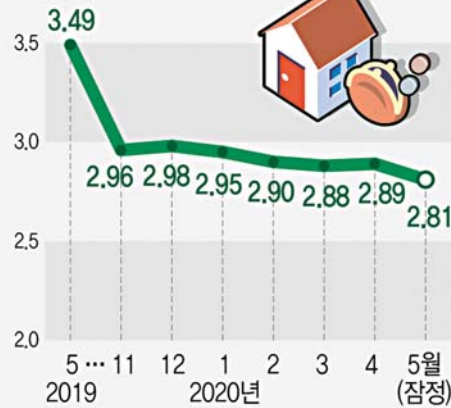
무협협회에 따르면 이번 MO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출 회복을 돕고 한국 우수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무협협회는 LG상사와 협력해 중국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를 발굴하고, 마케팅과 판매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래픽 경제

가계대출 금리 추이

신규 취급액 기준, 단위: 연%



가계대출 금리 역대 최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축성 수신 금리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게 내렸고, 0%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비중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집계한 2020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4월보다 0.08%포인트 내린 2.81%다. 이는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한 영향이다.

“경기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자영업자 울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전통시장 등 발길 뜰 지원금으로 다소 회복된 경기 다시 매출 하락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지역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과 시내 등 변화가 손님 발길이 뜰 줄랐다.

5일 오후 광주지역 대표 변화기인 충장로에는 유동인구가 확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가 텅 비었다.

충장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최모씨(34)는 “코로나19가 강타했던 지난 2~3월보다 손님이 더 없다”면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영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55)는 “주말이면 학생들과 가족단위 손님들로 가게 안에 꽉 들어차는데, 이번 주말에

는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다”면서 “평일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선 4일 지역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도 북적거려야 할 토요일 오후임에도 곳곳의 상점이 문을 열지 않았거나 열린 상점마저도 주인만이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방역 대응 단계가 격상되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다.

시장에서 47년째 건어물 장사를 해오고 있는 한 모씨(여·72)는 “시장에서 5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람구경 하기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식당에 건어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저번주부터 줄어들기 시작

해 이종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구점 상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침체된 경기가 다소 회복돼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장 내 수산물 코너와 채소·청과, 옷 판매점, 식당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텅 비어 있었다.

금남지하상가도 한산하긴 마찬가지다.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 모사장은 “손님이 줄면서 전기세라도 아끼기 위해 평소보다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닫는다”면서 “요즘엔 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시장을 찾은 김 모씨(여·63)는 “우리 지역에 번지는 감염 추세를 보면 무섭고 두려움이 앞선다”며 “당분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장이나 마트 등을 가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서너배 정도 많은 식료품을 사 간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주말인 4일 오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으며, 전남도도 6일부터 코로나19 지역 두기를 2단계로 상황 조치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박선옥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 도시락 5천만원 후원

취약계층 등 2,880개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 사업’을 후원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최근 ‘2020 기아 위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사업’에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광주서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서대석 서구청장과 김천수 광주시 사회복합시설의회장에게 후원금을 직접 전했다.

“기아위드사업”은 광주공장이 2016년부터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광주서구청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박래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과 김천수 광주시 사회복합시설의회장에게 기아위드 따뜻한 도시락 사업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은다.

전달된 후원금은 마을 소상공인들이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도시락을 만드는데 쓰인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은 광주 서구지역 민간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비롯해 광전동, 금호동, 능성1동, 상무2동, 양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120가구에 3개월 간 주 2회씩 총 2,880개가 전달된다. /이나라 기자

한전KDN, 세네갈 전력 안정화 나선다

동신대 산학협력단도 참여

한전KDN은 세네갈 주파수조정용 ESS 통합시스템 구축지원 주관 사업자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2020년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전KDN이 주관하고 동신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한전KDN이 사업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세네갈의 신재생 에너지원 급증에 따른 주파수와 전압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계통 주파수조정용 ESS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파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4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ECS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차제 공급, 기술 자문 및 교육지원까지 포함해 2022년 12월 까지 진행된다.

또한 서아프리카전력공동체(WAPP)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14국의 계통망을 연계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세네갈과 인접 서아프리카 국가의 후속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관계자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공동 참여형 해외사업 지속 확대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인터넷 검색

라임반찬

전국배송 런칭!!

라임반찬

똑똑한 주부 똑똑하게 라임반찬

삼시세끼 고민, 5분이면 끝!

300여가지 레시피, 매일 100여개 반찬 조리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 www.limebanchan.com



봉선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3 ☎1588-6356 수완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00번길 49 ☎062-955-3167 첨단점 광주광역시 월계로 187 ☎062-971-3167